

詩와 선율로 전하는 오월 광주정신

5·18 44주년 기념 오라토리오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9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오월 광주정신을 시와 선율로 승화하는 무대가 펼쳐진다.

☞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는 5·18 44주년 기념 오라토리오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가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다.

'오라토리오'는 독창과 합창, 관현악 오케스트라가 합쳐진 대규모 악곡을 의미한다.

2019년 첫 시작을 알린 5·18 오라토리오에는 올해로 5회째 송고한 오월 정신이 지역을 넘어 전국,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웅장한 규모와 창·제작 곡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광주시뿐만 아니라 지역 메세나를 실천하는 라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마련된 행사에 더욱 의미를 갖는다.

민족 문화가이자 시인인 고 문병란 선생의 5·18 관련 시에 작곡가 김성훈 교수가 곡을 붙여 만든 다양한 창·제작 곡들이 올해도 광주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시각적 효과를 살리기 위해 올해 공연에는 영상 작업이 무대 배경으로 함께한다.

구모영 천안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필두로 프라이밀하모닉오케스트라가 협연을 맡는다. 여기에 광양시립합창단, 나주시립합창단, 여주시립합창단 3개 단체의 하모니가 어우러진다.



왼쪽부터 지휘자 구모영, 소프라노 김선희,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정의근, 바리톤 김중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김선희를 비롯해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정의근, 바리톤 김중표 등 전국 각지에서 초청한 솔리스트가 무대에 오른다. 보이스프라노는 살레시오초 3학년 한재연군이 맡는다.

관현악 서곡으로 시작되는 '아내의 노래'를 시작으로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운 5월의 영혼을 노래하는 '아아 광주여 5월이여 그날의 꽃님이여' 공연이 이어진다.

보이스프라노 한재연의 '소년의 노래'에 이어 '구두땀의 노래', '남편의 노래' 등 당시 희생된 꽃다운 영혼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며 '전라도 빼꾸기', '부활의 노래' 등 합창곡이 그 뒤를 잇는다.

5·18의 신념과 미래 염원이 담긴 '아아 광주

여 5월이여 그날의 일체감이여', 희생자를 그리워하는 '감감한 어둠이', 이중창 곡 '누가 우리를.. 일어나거라', 결연의 의지를 담은 '아직은 슬퍼할 때가 아니다' 무대도 준비됐다.

다음으로 소프라노 김선희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신곡 '무등산' 독창곡을 들려준다. 밝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무등을 향하여'에 이어 모든 출연진이 함께 부르는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를 끝으로 공연은 마무리된다.

양진 음악감독은 "올해 오라토리오는 전국 예술가들의 목소리로 5·18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며 "송고한 광주의 오월정신이 앞으로도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광천동 시민아파트 전경'

오월의 기억, 역사를 기록하다

한진수 초대전 '5·18+1'...17일까지 북구 자미갤러리

"1980년 5월18일 그 장소에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역사를 배웠던 사람들이 만나 윤상원 열사를 더한다."

한진수 사진작가 초대전 '5·18+1'이 오는 17일까지 북구 자미갤러리에서 열린다.

이 전시는 두 가지 주제 '195·1819'와 '5·18+1'로 구성됐다.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생년월일 1951년 8월19일을 상징하는 '195·1819'는 지난 10년간 윤 열사를 주제로 작업해 온 사진가운데 주요 작품 60여점을 소개하는 섹션이다.

'5·18+1'에는 그날을 알려려 했던 윤 열사의 마지막 말처럼 후세에게 5·18을 전하고자 한 그의 염원이 담겨있다.

특히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5·18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3명의 여성

작가들과 함께 한다.

그 시대에 살았지만 5·18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추경경 작가를 비롯해 5·18 유공자의 딸 정민수 작가, 교육을 통해 5·18을 알게 된 유다는 작가다.

이들 작가는 윤 열사의 발자취를 따라 그가 태어난 천동마을, 광천동 시민아파트,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등 5·18을 상징하는 곳에서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각자 시선에서 바라보고 느낀 5·18을 이야기한 결과물을 18분 가량 영상으로 제작, 전시한다.

한진수 작가는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마다 '지금까지 한 항쟁을 잊지 말고 후세에도 이어가길 바란다'는 윤 열사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힘 닿는 그날까지 사진 찍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별이 빛나는 밤에-梨花에 月白하고'

목포KR갤러리, 오는 29일까지 최근일 작가 초대전

목포KR갤러리는 "최근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일 서양화가 작가의 '별이 빛나는 밤에-梨花에 月白하고' 전시회를 오는 29일까지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목포에서 활동하는 최근일 작가는 나주시에 사는 지인의 배 농장에서 배꽃이 만개한 밤하늘의 풍경을 보고 지난 2016년부터 '별이 빛나는 밤' 타이틀로 작품 발표를 시작해 개인전 총 19회 중 17회가 나주 배꽃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전대상 KR갤러리 전시기획자는

"'별이 빛나는 밤에-이화에 월백하고' '최근일 작가의 작품으로 스스로 위안을 받아 과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받았다'며 "스트레스, 피로를 정화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ACC, 호남지역 예술대학 졸업전 공모 내달 3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호남지역 예술대학을 대상으로 졸업 전시를 지원할 학과를 공모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다음 달 3일까지 문화예술분야의 잠재적 유망주이자 청년 예비 예술인인 예술대학 졸업 예정자의 졸업 전시 지원을 위

해 참여 학과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호남지역에 소재한 대학 문화예술 관련 학과로, 졸업 전시가 가능해야 한다.

ACC는 최종 선발된 4개 학과에 관람객 휴식 공간인 문화정보원 내 대나무 정원을 전시 공간으로 제공하고 전

시장 구축 및 전시 개막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ACC 대나무 정원이라는 공간 특성에 어울리는 ▲전시 장소의 적합성 ▲기획서의 실현 가능성 ▲전시주제의 참신성 ▲관람객과 소통을 위한 공공·공감성을 주된 기준

으로 평가한다.

전시는 오는 10-12월 학과별 10일씩 총 40일 간 릴레이 형태로 진행된다. 선정학과 참여 학생들에게는 전시 준비·운영 과정의 협업 기회를 통해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접수는 ACC 누리집 모집 공고에 첨부된 지원서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 때 "여보야"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다운로드 받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찾아보세요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